

## 컴패션 역사<sup>1</sup>

컴패션은 1952년 전도자였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된 35명의 어린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느낀 때부터 한국에서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에 따라 움직였던 한 사람으로 인해 12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전세계적인 사역이 되었다.

우리의 설립자는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았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 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I do not want to send them away hungry.)”

컴패션에서 우리는 어린이들의 영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필요를 돌본다. 우리는 1:1어린이결연프로그램(Child Sponsorship Program), 태아·영아생존프로그램(Child Survival Program), 1:1리더십프로그램(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양육보완프로그램(Complementary Interventions) 등의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를 달성한다.

### 1952

전도자 에버렛 스완슨은 한국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고아가 된 어린이들을 보게 된다. 스완슨 목사는 선교사 친구에게 도전을 받는다. “당신은 이 땅의 엄청난 필요와 유례없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가 미국에 돌아왔을 때 수표 두 장이 도착한다. 한국의 고아를 도우라는 50달러와 100달러짜리 두 장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라고 스완슨은 말했다.

스완슨 목사의 부인, 미리암 스완슨, 그리고 그들의 친구였던 거스 햄월(Gus Hemwall)박사와 헬렌 햄월(Helen Hemwall) 부부는 스완슨 목사가 한국의 고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며 함께 일한다. 햄월 박사는 스완슨 목사가 해외 사역을 시작할 때 의료 물품과 함께 상당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

<sup>1</sup> 웹페이지 개요에서 발췌한 컴패션 역사

### 1953

스완슨 목사는 그의 부흥 집회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한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그들이 쌀과 연료를 살 수 있는 기금을 기부한다.

### 1954

개인, 가족, 교회가 한 달에 몇 달러씩 지원하여 고아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 후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후원금은 한국의 어린이들에게 성경 공부, 음식, 옷, 숙소와 의료품을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 1956

후원금을 처리하고, 한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상적인 사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인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 Everett Swanson Evangelistic Association)가 출범한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대표: 에버렛 스완슨 목사(Everett Swanson)
- 부대표: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 총무 및 회계: 거스 햄월 박사(Gus A. Hemwall)

### 1960

1월에 한국을 방문한 스완슨 목사는 어린이들이 겨울 날씨에 맞는 옷을 입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신발, 양말, 두꺼운 속옷, 교복 등 완전한 겨울 옷을 제공하기 위한 "오퍼레이션 롱 언더웨어(Operation Long Underwear)"라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다음 해 6천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겨울 옷을 입게 된다.

### 1961

9월,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는 한국에서 108개의 보육원을 지원하게 된다.

### 1963

마태복음 15장 32절("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영감을 받아 시작했지만, 그의 이름이 점점 성장해 가는 사역을 대표하는 데 불편함을 느낀 스완슨은 기관의 이름을 스완슨 복음 전도회(ESEA)에서 컴패션(Compassion Inc.)으로 변경한다.

캐나다 컴패션이 결성되고, 밥 포사이스(Bob Forsyth)와 자넷 포사이스(Janet Forsyth)가 첫 번째 캐나다 사무실을 위해 그들의 집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현재 캐나다 컴패션은 온타리오주 런던(London)에 본부를 두고 22,000명을 후원하고 있다.

### 1964

서울의 건국대학교에서 스완슨 목사에게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가을에 미리암 스완슨은 네 번의 미국 투어 중 첫 번째를 인솔한다. 소수의 한국 고아들이 80개가 넘는 미국 도시들을 여행했다. 그들은 교회에서 찬양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전통 민요들을 불렀다. 그 결과, 수많은 신규 후원자들과 지지자들이 컴패션 사역에 합류한다.

### 1965

11월, 113명의 컴패션 후원자 및 지지자들이 컴패션 비전트립에 올라 한국의 컴패션 보육원과 프로젝트들을 방문한다. 거스와 헬렌 햄월 박사 부부가 3주 간 아시아 여행을 이끈다. 첫 번째 여행의 큰 성공에 힘입어 미리암 스완슨은 수 년간 6회의 여행을 더 인솔한다.

11월 15일,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13년 간의 컴패션 사역의 개척을 마치고 소천한다.

### 1966

몇 달 간의 기도 끝에 이사회는 헨리 하비(Henry L. Harvey) 목사를 컴패션의 대표로, 미리암 스완슨을 부대표로 선출한다. 더불어 거스(Gus) 박사가 이사회 회장으로, 엘머 올슨(Elmer Olson)이 회계로, 데이빗 스완슨(David Swanson)이 비서로 선출된다.

미리암 스완슨은 후원자 서비스를 대표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후원자들의 사역 관련 질문과 의견에 편지를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눈다.

하비 목사는 실무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경영에 대한 전문 지식을 얻게 된다. 인도에서의

13년 선교사 사역 경험은 그에게 현지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한다. 8년 간의 그의 재임기간 동안 컴패션은 17개 국의 새로운 나라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에버렛 스완슨을 위한 추모 기금이 조성되고, 기금은 한국 서울의 컴패션 사무실 건축에 사용된다. 컴패션의 후원자 아서 N. 크누드슨(Arthur N. Knudsen)은 1주일을 할애하여 한국으로 가서 스완슨 기념관 건립 계획을 세운다.

4월, 미리암 스완슨은 사옥 착공식에 참석하여 첫 삽을 뜨게 된다.

### **1967**

5월에 에버렛 스완슨 기념관이 준공된다. 미국의 93명의 후원자들과 컴패션 친구들이 이를 위해 헌신했다.

### **1968**

컴패션은 국제적인 성장을 시작하며 인도, 인도네시아, 아이티, 싱가포르 등 4개 국가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Family Helper Plan)을 시작한다. 이는 1965년에 컴패션에 합류하여 한국컴패션 대표 및 남아시아 현지 대표로 사역한 에드 김볼(Ed Kimball)의 진두지휘로 이루어졌다. 김볼은 수천 마일을 여행하며, 오늘날에도 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립했다.

### **1970**

신체적 장애와 질병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관리센터(Special Care Centers)가 조직되어 수술, 훈련, 신체 치료, 영양 공급 및 특수 의료 장비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1972**

컴패션은 미국 인디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 **1974**

월리(월리스) 에릭슨(Wallace (Wally) Erickson) 목사가 초대 중남미 현지 대표로 임명되었고, 그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컴패션을 위해 한국에서 4년 간 사역한 바 있다. 10월 이사회에서 그를 부대표로 임명한다. 헨리 하비 목사가 대표에서 은퇴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 프로젝트(School projects)가 세워진다. 이 프로젝트는 선생님들의 급여, 교재, 학용품, 교복, 의료비, 그리고 수업일에 따뜻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 **1975**

6월, 윌리 에릭슨이 컴패션 3대 총재로 취임한다. 그는 취임 전 8년 간 기관을 섬겼다. 일리노이주 블루밍턴(Bloomington)에서 태어나 중서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학부 및 대학원 학위를 위해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에 있는 대학을 다녔다. 1970년대 중반 한국의 대구 계명 기독교 대학에서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재임 기간 동안 후원어린이 수가 25,000명에서 180,000명으로 치솟았다.

영국의 기독교 구호 기관인 티어 펀드(TEAR FUND)가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 **1978**

호주 후원자들이 뉴캐슬(Newcastle)에 호주 컴패션을 세운다.

호주 컴패션을 통하여 27,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후원받고 있다.

### **1980**

컴패션 사옥을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로 이전한다.

12월, 비정규교육 프로그램(Non-Formal Education (NFE) program)을 도입하여 정규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교육 활동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1983**

기근/건강 기금(Hunger/Health funds)을 조성하여 양육 프로그램의 영양과 건강 관련 지원 분야를 보완한다.

#### **1984**

컴패션 기금(Compassion Fund)를 조성하여 컴패션 후원 어린이들에게 특수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한다.

미결연 어린이 기금(Unsponsored Children's Fund)을 조성하여 컴패션에 등록되어 후원자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을 지원한다.

#### **1986**

뉴질랜드 티어펀드(TEAR FUND)가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 **1990**

성경지원기금이 조성되어 모든 컴패션 지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제공하고, 모든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반응하게끔 하고자 하는 컴패션의 목표를 지원한다.

4월 프랑스의 구호 단체인 에스이엘(SEL, Service d'Entraide et de Liaison)이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프랑스에서 현재 4,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9월 21일 컴패션 이사회에서 미리암 스완슨과 거스 햄월 박사를 명예 이사로 임명한다. 두 명 모두 소천 시까지 그 역할을 담당했다.

#### **1991**

해외 장학금 프로그램(Overseas Scholarship Grant Program)을 만들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고등교육, 직업교육, 대학 진학 등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 **1992**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사역 40주년을 기념하면서 미국의 도시 빈민가 및 농촌 청소년, 그리고 미국 인디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한다.

### 1993

18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 세계 21개국 2,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략 25,000명의 다른 어린이들이 컴패션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후원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 한국에서 40년 간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철수한다.
- 에티오피아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 윌리 에릭슨 목사가 18년 간 총재로서의 사역을 마친 후 은퇴하고, 웨스 스탠포드(Wess Stafford) 박사가 총재에 취임한다.

스태포드 박사는 총재 및 대표가 되기 전 15년 간 컴패션 해외 사역과 본부에서 섬겼다. 그는 아프리카 아이보리코스트에서 성장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선교사 부모의 헌신에 동참했다. 대학 졸업 후 아이티에서 컴패션을 포함한 6개 국제 구호 조직의 대표로 섬겼다. 그의 다양한 해외 경험은 그가 여러 언어에 유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무디(Moody), 비올라(Viola), 휘튼(Wheaton) 대학에서 학부 및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그는 이렇게 기독교 사역자로서의 삶을 준비했다.

### 1994

전국적으로 140,000명의 '방치된' 어린이들을 발생시킨 르완다 내전 후, 컴패션이 르완다에서 구호 사역을 시작한다.

2월 4일, 명예 이사이며 에버렛 스완슨의 미망인, 미리암 스완슨 웨스트버그(Miriam Swanson Westerberg)가 소천한다.

### 1995

르완다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 1996

네덜란드가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2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1:1리더십결연프로그램(LDP 프로그램)이 필리핀에서 첫 학생들을 맞이하며 시작한다.

컴패션은 첫 번째 웹사이트를 시작한다.

### **1997**

아이티와 과테말라에서 LDP를 시작한다.

### **1998**

25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11월 22일, 사역의 개척자이며, 명예 이사인 거스 햄월 박사가 소천한다.

### **1999**

탄자니아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영국 컴패션이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 **2000**

필리핀에서 첫 번째 LDP 학생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 **2001**

4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21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컴패션 국제사역센터(Compassion's International Ministry Center)가 콜로라도 스프링스 북부로 이전한다.

이태리가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2002**

컴패션이 어린이 사역의 50주년을 축하한다!

니카라과에서도 어린이 후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총 22개국으로 확대된다.

**2003**

5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20개국 이상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컴패션 스위스가 컴패션 사역에 동참한다.

12월, 방글라데시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2004**

한국이 컴패션 후원국이 된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2005**

가나에서 컴패션 사역을 시작한다.

**2006**

8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24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2007**

900,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전세계 24개국에서 컴패션 사역을 통해 후원받고 있다.

온두라스에서 LDP를 시작한다.

컴패션 독일이 후원국이 된다.

## 2008

2월, 백만 번째 등록 어린이를 축하한다.

## 2013

웨스 스탠포드 박사가 21년 간의 컴패션 총재 및 대표에서 은퇴하고, 산티아고 지미 멜라도 (Santiago "Jimmy" Mellado)가 취임한다.

엘살바도르에서 태어나 7개국에서 자란 지미는 지역 교회들의 부흥이 지역 사회, 특히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영향을 직접 경험했다. 2013년 6월 컴패션 취임 전,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국제 사역 기관, 윌로우 크릭 협회(Willow Creek Association (WCA))에서 20년간 대표로 재직했다. 1995년, 빌 하이벨스(Bill Hybels)와 팀을 이루어 글로벌 리더십 서밋(Global Leadership Summit)을 주최했다. 이 서밋은 지역 교회와 세계 각지의 사람 중심 기관에서 절실히 필요한 우수한 리더십 훈련을 해결하기 위한 비영리 연간 행사이다. 텍사스주 달라스의 서든 메소디스트 대학(남감리교대학,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SMU))에서 기계 공학을 우등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